

해외현장연구 보고서

말레이시아 내 학교생활을 통한 종교가치관 형성
- 일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외현장연구 4조 '라뽀'

불어불문학과 201721675 강지혜
영어영문학과 201621551 김예은
영어영문학과 201621546 김정은
영어영문학과 201621597 박다혜

목차

I. 서론 - 연구필요성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말레이시아 내 종교의 역사적 배경
2. 말레이시아 내 종교의 사회적 현황

III. 연구방법론

1. 문헌조사
2. 참여관찰 및 인터뷰
3. 방문기관

IV. 연구 내용

1. 교육방식
2. 교과서 내용
3. 학교생활

V. 결론

VI.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세계는 복합적 다문화사회로 발전하였다.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중심의 단일문화주의는 자취를 감춰가고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인종과 민족, 종교가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지배를 통해 문화를 확산했던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문화의 공유와 전파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현대 사회는 샐러드볼 속의 조화로움과 같이 하나하나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되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다문화의 이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의 조화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종교 간 갈등이다. 2000년대 이후 종교적 동기가 동력원이 된 갈등이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2014년을 정점으로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종교 분쟁은 상호이해가 결여된 채 발생하여 타 종교를 배타적으로 여기게 하고,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의 조화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종교적 이념이 빚어낸 종교 분쟁은 국제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빠르게 진전되는 세계의 다문화화(化) 속에서 다민족 간 화합을 위해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말레이시아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서 교역의 중간 지점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많은 국가로부터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토착민이었던 말레이계를 비롯해 피지배시대 당시 유입된 중국인, 인도인 등의 비말레이계가 기존 민족 문화의 유지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각 문화마다의 뚜렷한 문화정체성 확립을 이루었고, 국가 내 다문화의 뿌리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 속에서 불가피하게 종교, 민족 간 갈등이 존재해왔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갈등과 불안이 내재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말레이시아는 ‘다양성 속의 일체감’라는 국가이념 아래 어떠한 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성 유지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말레이시아는 과거부터 민족과 긴밀히 연결되어 쉽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다종교 현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공식종교를 이슬람교로 지정하였지만 민족에 따른 종교적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종교적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¹⁾개종이나 선교, 국가 시스템 등에서 사회적 이해를 이뤄 이슬람의 부흥을 이끌고자 하지만 공식종교란 이유로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나

1) 말레이시아 헌법 제3조 “주(州)의 종교는 이슬람이다.”

말레이시아 헌법 제11조 모든 사람(비 시민자 포함)은 그들 자신의 종교를 믿고, 실행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신앙을 이슬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는 한, 신앙 전파의 자유가 있다.

아가 타종교 사회의 유지와 부흥을 위해 이슬람을 비롯한 주요 종교들의 축제, 행사를 기념한 국가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종교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과거의 민족폭등 사건 이후 종교와 직결된 민족 간 갈등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은 말레이시아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주변국(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비해 종교 분쟁이나 문화 간 갈등을 비교적 적게 겪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화가 진행되어가는 한국을 비롯한 21세기 사회 속 그 균형과 공존, 존중을 위해 노력하는 말레이시아를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해봄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적 종교 간 갈등이 적은 원인을 '종교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찾으며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종교가치관 형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학교 시설, 제도와 같은 교육 환경, 교과수업 내용, 또래 집단 간 교류 등 학교생활 전반의 관찰 및 연구를 통해 다종교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학습하는지 연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당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조화로운 다종교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말레이시아를 연구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의 확산과 동시에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는 다종교의 공존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말레이시아 내 종교의 역사적 배경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61.3%가 이슬람교를 믿으며, 19.8%가 불교, 9.2%가 기독교, 6.3%가 힌두교, 1.3%가 유교, 도교 등의 전통 중국 종교를 믿는 다종교적 사회이다. 이처럼 말레이시아 대륙에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게 된 배경은 고대부터 시작된다. 지리적으로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에 위치한 말레이 반도는 동서양 무역상이 지나는 통로였고, 2~3세기경 동서양 무역상은 말레이 반도에 무역항과 해안 마을을 건설했다. 그 결과 인도 및 중국 문화가 현지 문화에 강한 영향을 끼쳤고, 말레이 반도에 힌두교와 불교가 유입되었다. 14세기 무렵 아랍 상인들이 이슬람교를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슬람교가 퍼지게 된다. 15세기 초, 말레이시아 최초의 국가인 말라카(Malacca) 왕국이 건설되었고, 국왕이었던 파라메스와르가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1414년 이슬람교가 국교로 선포된다. 말라카 왕국은 동서양을 잇는 교차로로서 인도네시아 일대에서 생산된 향신료를 유럽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며 번영을 누렸다. 또한 이슬람 문학과 신비주의, 이슬람 법학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하며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번영을 누리던 말라카는 향신료를 노리던 유럽열강들의 표적이 되어 1511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1641년에는 네덜란드, 1826년부터는 영국지배를 받는다.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시작으로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유입하게 된다. 영국은 식민지배 당시, 말레이시아인들이 각자의 고유영역을 이루는 것을 허용하며 그들 고

유의 사원이나 교회 등이 활동하도록 하여 다양성을 유지시킨다. 이후 영국의 주도 하에 주석광산과 고무농장에서 일할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이 말레이시아로 대거 이주하여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게 된다. 식민지배 당시, 서구 식민지배자들의 이민으로 인한 유입은 매우 미미했으며, 중국인이나 인도인들과 말레이인들은 도농 간의 경계선을 따라 분명하게 분리되어 혼인관계를 통한 인척관계의 형성 역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호간의 접촉과 교류의 제한으로 인해 민족 집단 간의 언어, 종교, 전통관습 등의 서로 다른 문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존재하게 된 말레이시아 1957년 독립 이후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다민족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었다. 100여 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유입된 이민족의 대대적인 유입은 말레이와 비말레이 간의 빈부격차로 이어지며 민족 간 갈등으로 변진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부흥 운동은 말레이인의 권리와 이익을 요구하는 민족주의운동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는 전통 사회에서 식민통치 시대를 거쳐 산업 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중국인, 인도인은 급성장한 반면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정치사회적 약세가 지속되었던 것이 이슬람의 부흥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1969년 5월 13일의 민족폭동은 이러한 민족 간 불균등한 부의 분배와 빈부격차를 계기로 발생한 이슬람부흥운동의 방아쇠였다. 5.13 민족폭동은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19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9143명이 체포되었으며 753개의 건물이 방화에 의해 훼손되었던 말레이시아 역사상 유례없는 암흑기였다. 5.13 민족폭동은 5월 선거에 집권정당이 아닌 야당이 선발되자, ‘이제 쿠알라룸푸르는 중국의 땅이다.’ 라고 외쳤던 중국인들에게 분노한 말레이가 무기를 들고 나와 200여 명의 중국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말레이인은 중국인과 인도인의 경제력 향상에 대비되는 말레이인의 경제적, 정치적 불만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자신들만의 언어와 전통관습 등이 그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슬람은 말레이인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며 민족 폭동 이후 말레이인의 단결과 유대를 강화하는 핵심적 가치가 되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슬람 부흥운동은 1980년대에 이르러 말레이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슬람의 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본격화한다.

1980년대 이후로 정부는 무슬림 대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슬람 편향성이 드러나는 친이슬람화 정책이 추진한다. 1984년 ‘정부기관의 이슬람화’를 선포하여 이슬람부흥운동을 지원하는 국영 종교기관을 설립하였으며 말레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처럼 이슬람이 부흥을 이루며 정부와 교육, 경제 속에 영향력을 확산해감에 따라 타 종교와 민족 공동체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발생했다. 종교부지의 분배를 공정히 하지 않아 사원이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비무슬림 일지라도 반드시 이슬람 문명을 교과과목에 포함하여 이슬람적 세계관을 교육받았던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독립 이후 말

레이시아 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존재해온 민족문제를 약화시키게 된 계기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레포르마시 운동과 버르시 운동을 통해서이다. 1997년 경제위기를 통해 정부의 비효율적 경제 운영과 부정부패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의식과 반발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안와르의 부정한 해임에 반대하여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레포르마시 운동’이라 한다. 레포르마시 운동은 광범위한 정치, 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운동이었고, 마하티르 정권의 부패를 비판하며 ‘사회적 정의, 민주주의, 투명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특정 민족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던 기존의 운동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레포르마시 운동의 핵심세력은 말레이 중산층이었지만 중국인들이 주도하던 시민단체가 합세함으로써 다종족 시민운동의 성격을 보이게 된다. 레포르마시 운동 이후 다양한 종족적, 종교적, 이념적 배경을 갖는 정당들이 연합 정당을 결성하였고 레포르마시 운동은 버르시 운동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한다. 1999년과 2004년의 총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선거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위원회’라는 명칭을 내세운 시민단체연합인 버르시의 정치개혁운동이 시작된다. 버르시는 선거개혁을 위한 각종 부정행위 중단, 부정부패 척결, 선거운동기간 연장, 모든 정당에게 공정한 언론보도 보장 등을 요구하였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민주주의를 위한 행진을 주장하며 대중 집회를 개최하였다. SNS의 동원과 정부의 가혹한 탄압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버르시 운동은 주요 슬로건으로 민족이 아닌 ‘국민’을 사용하여 말레이시아인들이 보편적 민주 권리를 누리지 못함을 비판하였다. 말레이시아인들을 분리해왔던 민족과 종교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보편적 권리를 박탈당한 대중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단결시키려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국가 건설을 이루어야한다는 국가적 이념과 목적을 말레이시아인에게 확산하였다. 레포르마시 운동과 버르시 운동은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다양한 민족, 계층, 연령 집단이 참가하며 말레이와 비말레이 대중들이 민족감정을 뛰어넘어 국가 단위로 단결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통해 민족 간 갈등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했던 종교 간 갈등 또한 느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2. 말레이시아 종교의 사회적 현황

민족과 종교가 일치하는 경향이 강한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민족으로 인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말레이계를 포함하여 차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차별로 인한 비말레이계의 불만제기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예를 들어, ‘쿼터제’를 통해 말레이계는 비말레이계에 비해 대학 진학에 혜택과 우대를 받고, 말레이계와 달리 비말레이계는 공식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비말레이계는 수많은 중국계와 인도계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이처럼 비말레이계가 차별로 인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로 인한 불만이 사회적으로 크게 분출되지는 않는 것이다. 한편 모든 민족이 평등하게 서로 어울리도록 유도하는 학교시스템과 각 민족 간 단결의 수단인 말레이어의 사용으로 인해 각 민족들은 60년대 이후 여러 세대를

거치며 ‘말레이시안’이라는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종교 문제와 직결되는 민족 간의 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인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만큼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국가들보다 종교적 분쟁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현재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가 종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비율은 이슬람교가 약 61퍼센트, 불교가 약 19퍼센트, 기독교가 약 9퍼센트, 힌두교가 약 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헌법에 이슬람교를 공식 종교로 지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 11조 조항에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슬람교가 말레이시아의 공식종교로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지니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종교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레이계 민족은 의무적으로 이슬람 신자가 되는 반면 이들을 제외한 중국계, 인도계를 비롯한 민족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를 갖는 즉, 민족에 따라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국교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말레이시아는 국가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슬람교와 타 종교 간의 종교 분쟁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과 국가 고위층이 무슬림이기에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교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슬람교는 국가의 정치, 문화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 말레이시아는 종교 관련 분쟁의 판결 권한을 대부분 이슬람 법원에 위임하고, 말레이계 무슬림 국민들의 결혼, 개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슬람법을 따르도록 법률로서 규정해 놓았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민족에게는 이슬람교를 강제하다시피 하지만 말레이계를 제외한 민족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소 모순적인 종교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종교간, 민족 간의 화합을 국가의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발생한 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라 할 수 있다. 1969년 5월 13일에 말레이인 우대정책에 불만은 품은 화교집단과 중국계 야당의 승리라는 총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말레이인들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분출하며 대립하였으며 그 결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유혈참사가 발생했다. 이러한 대참사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종교와 민족 간의 화합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로 여기게 되었으며 5.13사태를 악선례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종교 간 갈등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서로의 종교에 대한 간섭을 금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종교 혹은 민족의 이념에 대해 침범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기 위해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러한 ‘존중’은 말레이시아 사회 곳곳에 녹아 들어있다. 그 예로 말레이시아는 모든 종교의 기념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교인 이슬람 외의 종교에 대해서도 그들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공립학교에서는 비무슬림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 학생들을 배려하여 노출이 있는 복장을 피하고 무슬림 학생들이 기도시간을 지킬 수 있게 배려하는 등 서로에 대한 존중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다른 민족과 교류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종교에 대한 이해와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진 학우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여러 축제를 통해 다양한 종교와 민족을 가진 국민들을 융합시키고자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오픈하우스”인데 이는 종교 및 민족의 특정 축제기간동안 자신의 집이나 특정한 건물 등에 전통 음식을 준비해놓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대화를 통해 서로 교류하는 관습이다. 이러한 관습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른 문화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여러 세대를 거친 현대의 말레이시아에서는 개별적인 민족과는 상관없이 스스로가 하나의 말레이시아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오픈하우스”와 같은 축제가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매개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결속력을 다지는 장으로써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된 국교가 이슬람교이고 다수의 국민이 이슬람교 신자이기에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슬람교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 예로 말레이시아에는 여전히 술탄이라 불리는 이슬람 왕이 존재하고 이들의 영향력은 국가의 실질적인 권력자인 총리를 넘어선다. 또한 이슬람교도에 대한 선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을 주말로 정하는데 이는 금요일이 이슬람교의 합동예배가 이루어지는 공휴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슬람교 위주의 사회적 체제는 비무슬림에게 차별적 대우로 여겨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에 한 집단이 다른 종교집단을 탄압하는 형태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지만 종교 간의 사소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한다. 그 예로 ‘알라’의 호칭을 두고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대립한 사건이 있다.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에서 하나님 대신 ‘알라’ 혹은 ‘알라 알 아압’이라 부르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알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이슬람교도들은 ‘알라’는 오직 무슬림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 주장하며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 사건으로 말레이시아 일부에서 교회 방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큰 종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말레이시아 내에서 종종 발생하는 작은 대립 사건으로 여겨진다.

말레이시아 내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기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종교의 다툼을 조장할 여지가 있는 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예로 게임회사인 밸브에서 개발한 ‘신들의 전쟁’은 예수와 부처 등 종교적, 신화적 인물들이 서로 결투하는 내용의 게임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민족, 다종교로 구성된 자국민의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말레이시아 연방의 목표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이 게임이 종교적 다툼을 야

기해 이러한 목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하여 벨브에 이 게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종교적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높지만 분쟁의 발생이 적은 이유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가치관 성립과 사회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또래와 교류하고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교생활이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인 학교 환경 및 교육 체계와 방식을 문헌조사, 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하였고, 학교 관계자와 선생님, 학생, 전문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현장 연구 이전, 말레이시아의 공립학교를 졸업한 한국 내 말레이시아인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교육 체계와 학교생활에 대한 기초 이해를 인터뷰를 통해 이루었다. 또한 해당 사회에 속하지 않아 객관적 시각으로 그 사회를 바라보는 전문가 분들을 통해 현재 말레이시아 사회의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는 공립학교 방문을 통한 관찰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공립학교의 공식적이고 통일된 종교 교육 및 다양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종교, 도덕 과목을 비롯해 교과서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수록된 가치들에 대해 어떤 자세와 교육관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지 선생님들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보았다. 또한 교실이나 학교의 책상 배치구도나 해당 활동실의 역할이 의미하는 바와 역할을 알아보려고 전반적 교육 환경을 관찰하였으며 수업에 참여해보았다. 더불어 그러한 교육 체계와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학생들을 통해 실제 또래 친구들 사이의 관계와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축제와 같은 문화 다양성 이해 활동에 대해서도 새로이 알아볼 수 있었다. 학교 외 말레이시아 현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을 통해서도 교육 시스템의 전문적인 부분이나 정치, 역사적 배경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현지 분위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문헌조사

a. 말레이시아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

-말레이시아 역사 관련 논문 및 서적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다민족, 다종교적

- 특성을 가지게 된 역사적 배경 이해
- b. 말레이시아 내 다종교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
 - 말레이시아의 다종교, 다민족적 특성 관련 논문 및 서적을 바탕으로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사전지식 및 기본개념 숙지
 - c. 말레이시아의 교육 시스템 조사
 -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이 학습하는 교육체계와 교육환경 조사
 - d. 말레이시아 현지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검토
 - 도덕, 역사, 종교 등의 교과서를 통해 종교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조사

2. 참여관찰조사 및 인터뷰

- a. 말레이시아 내 공립 일반학교 방문 (Primary, Secondary School)
 - 학교에서 상호존중을 위해 어떠한 교육을 받고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지 관찰

국내외 인터뷰 진행

	대상 분류	연구 대상	대상 소속	추가 정보	기타
한국	전문가	홍석준 교수님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	대면인터뷰
		김형중 교수님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	전화인터뷰
	비전문가	Nadia	-	말레이계 무슬림	온라인인터 뷰
		Shuang Lyn	아주대학교 교환학생	중국계	대면인터뷰
		Naquib	고려대학교 유학생	말레이계 무슬림	온라인인터 뷰
		Ng king chew	한양대학교 유학생	중국계 무교	대면인터뷰
		Loh Poh Yee	세종대학교 교환학생	중국계 불교	대면인터뷰
		Lee Ka Qi	세종대학교	중국계 불교	대면인터뷰

		교환학생		
	Lau Yun Yun	세종대학교 교환학생	중국계 기독교	대면인터뷰
	Ang Shin Wei	세종대학교 교환학생	중국계 불교	대면인터뷰
	Nadia	세종대학교 교환학생	말레이계 무슬림	대면인터뷰
	Eileen	세종대학교 교환학생	말레이계 무슬림	대면인터뷰
	Nabilah	세종대학교 교환학생	말레이계 무슬림	대면인터뷰

	학교이름	선생님	학생
말레이시아	Sekolah Menengah Kebangsaan Maidi Baru2 (말레이시아 공립 중·고등학교)	인도계 영어 선생님	중국계 불교 학생
		인도계 도덕 선생님	중국계 기독교 학생
		중국계 영어 선생님 (2)	이반 학생
		말레이계 영어 선생님	인도계 힌두교 학생
		말레이계 종교 선생님	말레이계 이슬람교 학생
	Sekolah Kebangsaan Taman Pelangi (말레이시아 공립 초등학교)	말레이계 종교 선생님	인도계 이슬람교 학생
			말레이계 이슬람교 학생(2)
			중국계 불교 학생
		인도계 도덕 선생님	중국계 기독교 학생
			태국계 학생
	The National	류승완 교수님	-

	University of Malaysia(UKM)		
--	--------------------------------	--	--

3. 방문기관

방문기관	위치	전화번호	목적
Sekolah Kebangsaan Taman Pelangi (말레이시아 공립 초등학교)	Jalan Kuning, Taman Pelangi, 80400 Johor Bahru, Johor, Malaysia	+ 65 8280 9392	학생 및 선생님 인터뷰
Sekolah Menengah Kebangsaan Maidi Baru2 (말레이시아 공립 중·고등학교)	81200 Johor Bahru, Johor, Malaysia	+ 65 8087711	학생 및 선생님 인터뷰
The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UKM)	43600 Bangi, Selangor	+ 60 3-8921 5555	류승완 교수님 인터뷰

IV. 연구내용

1. 교육방식

국가의 공통된 가치관 함양에 있어 교육 커리큘럼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를 전달하고 발전시키는 교육관과 그 방식이다. 말레이시아는 과거서부터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았지만 분화된 각각의 민족성이 아닌 공통된 말레이시아 국가 가치관을 강조해왔다. 1950년대부터 교육 시스템의 공립화를 통해 보편적 무상 교육을 제공하였고 70년대부터 국가 언어 정책에 따라 교육 내 말레이어를 필수로 지정하였다. 사회적 통합과 안정이라는 가치관을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지니게 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교육의 중요한 목표였고, 이는 곧 ‘말레이어’를 통해 말레이시아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의 조화를 이루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이반과 카다잔두순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인 한 교

실 내에서 보편적 가치와 상호 존중의 이해를 담은 교과서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그룹 형식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과목과 선생님의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원별 정리에서 전반적 수업진행에까지 수업 내 그룹 활동이 진행된다. 한 그룹은 대체로 4-5명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팀을 이루기도 하고 선생님이 민족과 종교를 고려해 구성해주기도 한다. 수업 내용에 대해 토론과 각 그룹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상호 간 의견 존중과 타 시각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활동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며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통해 민족이나 종교에 한정되지 않고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듣는데 익숙해지는 계기가 된다. 그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타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듣고 나누며 그 이해를 넓혀간다. 꼭 종교나 민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업이 아니더라도 과학, 영어, 역사 등 많은 과목에서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 간 문화를 나눠 반의 화합을 이루며, 민족이나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고 친해지는 역할을 한다.

저의 경우, 우리 반에는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인도인이 있는데 셋 다 다른 그룹에 속해 있어요. 우리끼리 같은 민족이라 해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고 서로 그룹의 친구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내요.

- 중·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도계)

위의 학생을 비롯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민족이나 종교에 한정되어 친구를 사귀거나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민족에 치우친 친구 관계 혹은 차별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룹 활동이 큰 의미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룹 활동을 비롯해 학생들 간 교류를 위해 학교 시설이나 분위기 또한 수업 내 서로 간 대화와 소통을 지향하고 있다. 교실 내 책상 구도는 그룹 활동의 원활하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책상을 이어 붙인 분단 형식이나 원탁 책상이 보편적이며 종교나 도덕 과목에서부터 국어, 수학, 화학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룹 형식의 수업이 진행된다. 도덕 과목의 경우, 선생님을 둘러싼 원탁 수업을 통해 기독교, 불교, 힌두교, 소수 종교의 학생들이 보편적 가치와 함께 타 종교의 가치를 함께 나눈다.



그림 1)



그림 2)

그림1)과 그림2)는 동일한 시간 진행되는 종교 교육과 도덕 교육 시간이다. 무슬림 학생의 경우 이 시간동안 이슬람 규율과 알 쿠란 등에 대해 배우며, 비무슬림계 학생은 세계화 사회의 가치들에 대해 학습한다. 이 두 수업의 경우 대체로 그림과 같은 원탁 수업의 그룹 학습이 이루어지며, 종교에 대한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 간 충분한 이해를 갖는다.

그룹 활동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조화를 이루는 가장 큰 사회적·교육적 도구는 바로 언어이다. 70년대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말레이어는 그룹 활동과 수업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그들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레이시아 국가 내 민족별 부족별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레이어를 통해 소통하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는 <바하사 말레이시아 Bahasa Malaysia>가 기반이 된다. 공립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말레이어로 진행되며, 타밀학교에선 말레이어와 함께 타밀어를, 중국계 학교(화인학교)에선 말레이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등 특수학교여도 말레이어는 필수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특히 말레이시아 고등졸업시험인 STRM의 필수과목으로 말레이어를 지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이나 생활 전반에서도 말레이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말레이어의 사용은 민족이나 종교, 문화를 초월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도구가 되며 이를 통해 학교 외에서도 사회의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학생들 간에도 친구의 민족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말레이어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친해지고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수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 말레이어를 통해 누구나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보다 풍부하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학교에서 민족을 기준으로 학생을 구분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인디안, 차이니즈, 말레이 등 민족 간 언어는 다를지라도 말레이어를 바탕으로 함께 먹고 생활하며 차이나 장벽은 없다는 것이 강조된다.

“인도계 내에서도 타밀어를 비롯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문화 또한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Indian’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존재 하죠. 이렇듯 말레이계를 비롯해 중국계도, 인도계도, 그 외 민족도 언어가 다를지라도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레이시아 또한 다문화 사회이지만 말레이어를 바탕으로 One Malaysia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타인이 어떤 언어와 문화를 갖더라도 그들을 어떠한 마음을 갖고 대해야하는지 배우며 ‘말레이시아인’의 가치를 지닙니다.”

- 중·고등학교 영어교사(인도계)

“민족 별 다양한 언어를 가지기도 하지만 말레이시아 내에선 공통적으로 바하사 말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일반 공립학교든 화교학교든 말레이어 과목을 필수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거나 중국어를 못할지라도 말레이어를 필수로 함으로써 누구나 모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언어를 통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존중할지에 대해 배우고 서로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공통언어인 말레이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고등학교 영어교사(중국계)

“ 학교에서는 다양한 민족의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전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친구와 함께 생활 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 초등학교 여학생 (인도계 무슬림)

끝으로, 교과서와 함께 선생님들의 상호 존중의 교육 방식과 태도는 학생들로부터 본보기가 된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섞여 한 반에도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잘 조화시키고 말레이시아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지니도록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다민족이 함께 사는 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말레이인이 많은 학교라 한 반에 비말레이계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학생에 있어 그 민족과 종교를 기억하고 존중합니다. multi-races 교실의 수업을 들어가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비롯해 모두를 어떻게 존중하고 대해야 하는지 앞으로써 보편적 도덕 가치와 상호 존중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 우리가 학생들을 존중함으로써 그들 또한 선생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조화 또한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과서와 수업의 의미를 더욱 넓혀주는 것은 이러한 서로 간 존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말레이계), 영어교사(인도계)

말레이시아의 학생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라는 교육 공간 안에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토대를 사귀고 선생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성장한다. 이러한 교육 방식과 선생님들의 교육관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의견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레이어를 통해 주체적인 해석과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이는 곧 사회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어지며 말레이시아가 각각의 민족성을 유지하되 하나의 공통된 언어와 정체성을 갖는데 큰 부분으로 존재하게 된다.

2. 교과서 내용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사회화를 위한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교과서를 구성하는 삽화, 내용, 단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가치관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학교에서는 다양한 인종 간의 문화 간의 이해를 도와, 격차를 해소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한다. 따라서 모든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이반 등의 소수민족의 전통 복장, 피부색 등을 보여주는 인물이 균형있게 삽화로 이용되어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1)



그림2)

그림1)과 그림2)는 말레이시아의 교과서에서 다양한 민족이 평등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덕교과서 뿐만 아니라 후에 서술할 모든 교과서에서 말레이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이 균등하게 삽화로 등장한다. 교과서의 이러한 삽화구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가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자신과 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종교 과목, 도덕 과목뿐만 아니라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과목을 포함하는 다양한 과목에서 상기한 모든 민족의 관습, 복장, 식 문화, 종교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종교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하고, 무슬림이 이러한 기간을 완수한 것에 대해 축하(celebrating)를 하는데 왜 이러한 축하를 하는 것인지 다른 문화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러한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간 존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중국계)

“도덕은 수업 때마다 주제를 정해서 진행합니다. 주제는 예를 들어 공동체 생활, 시민을 위한 교육,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와 같은 것들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이슬람은 모스크를 가고, 불교는 절에 가고, 기독교는 교회에 가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또한 다른 종교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는지 와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shuang lyn (중국계)



그림3)



그림4)

위의 교과서는 각자 중국, 인도, 말레이 소수민족의 삽화와 사진을 넣고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3)에서는 차례대로 해당 문화권의 학생들이 무하마드의 탄생일, 타이 푸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를 기리고 축하하는 삽화를 넣고, 기념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친구가 기념한 축하 행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친구로서 종교의 축하 행사를 존중해야 할까?’라는 하단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타 종교의 축하 행사를 알아보고 생각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다른 문화권에 대한 존중의 태도에 대해 배우게 한다. 그림 4)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갖는 학생들이 오픈하우스를 통해 각 문화의 음식을 대접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얼마나 많은 축제가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하시오.’, ‘축하 일에 친구들을 방문할 때 어떻게 대우하는지 토론 합니다.’라는 하단의 활동

또한 말레이시아 내의 다양한 종교가 갖는 종교축제에 대해 학습하도록 돕고,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이 올바르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갖는 사람들의 음식, 종교, 기념일 등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타 문화와 올바르게 교류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전달한다.

도덕 교과서는 각 종교의 특성 자체가 타 종교를 존중하고 시민의 화합과 조화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agama saya menggalakkan penganutnya supaya hidup aman damai. Perbalahan dan persengketaan dapat diselesaikan secara baik. _중국계
제 종교는 추종자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장려합니다. 갈등과 분쟁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agama saya menghendaki kami menghormati agama dan kepercayaan kaum lain. Kami juga diajar untuk bekerjasama dan berbuat baik antara satu sama lain. _말레이계
제 종교는 다른 종족의 종교와 신념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도록 배웁니다.

dalam agama saya, keharmonian masyarakat bermula dari dalam diri sendiri. Kami diajar untuk bersangka baik terhadap orang lain. _인도계
제 종교는 지역 사회의 조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하도록 배웁니다.

agama saya pula mementingkan ikatan persaudaraan untuk hidup bersatu padu dan harmoni. _인도계
나의 종교는 또한 형제애의 단합과 조화로운 삶을 위한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Penganut agama saya juga mementingkan hidup sejahtera. Kami diajar untuk mentatangi semua orang. _기독교

내 종교인들도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가르칩니다. Kepercayaan kami pula menekankan hubungan yang mesra antara manusia dengan alam semesta untuk hidup sejahtera. _소수민족
우리의 신념은 또한 인간과 우주가 우호적인 관계가 번성하도록 강조합니다.”
_1학년 도덕 교과서 中

한편 말레이시아는 도덕뿐만 아니라 종교,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등의 교과서에서도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고, 타문화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내용을 빈번하게 담고 있다. 나아가,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민이며, 국민으로서 국가라는 가치

를 통해 단합될 수 있음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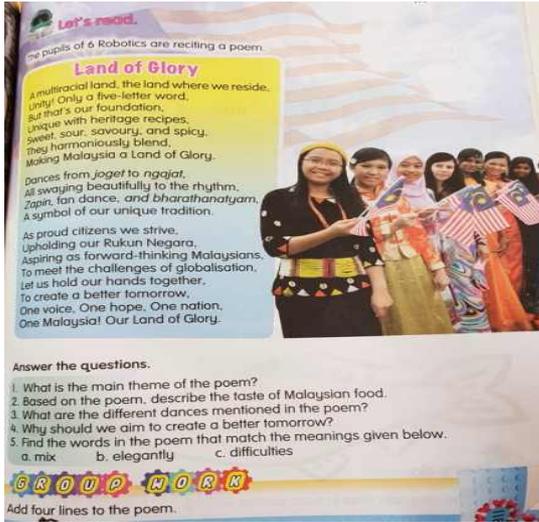


그림5)



그림6)

그림5)의 영어 교과서는 ‘영광의 땅’이라는 시를 통해 말레이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p>『영광의 땅』 다양한 인종이 사는 땅, 그 땅에는 우리 가 산다. 통합! 두 글자일 뿐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토대이다. 유산의 비결과 독특함은, 달고 시고 짭짤하고 매운, 그들은 조화롭게 섞이며, 말레이시아를 영광의 땅으로 만든다. joget에서 ngajat까지의 춤에서, 리듬에 맞춰 모든 아름다운 흔들림이, zapin, fan dance,</p>	<p>그리고 bharathanatyam은, 우리의 독특한 문화의 상징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분투하 며, 우리의 Rukun Negara를 옹호하며, 촉망받는 말레이시아를 열망하며, 세계화의 도전을 만나며, 같이 손을 잡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자,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희망으로, 하나 의 나라로, 하나의 말레이시아! 우리의 영광의 땅.</p>
---	---

‘영광의 땅’에서는 ‘다양한 인종이 사는 땅’, ‘통합’, 등의 시어를 사용과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이 ‘조화’롭게 섞인다는 표현을 통해, 말레이시아라는 한 국가에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 및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다양한 민족의 전통 춤인 ‘joget(말레이 전통 춤)’, ‘ngajat(소수민족_이반의 전통 춤)’, ‘zapin(말레이 특수지역의 대중 춤)’, ‘fan dance(일반 춤)’, ‘bharathanatyam(인도 전통 춤)’이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의 상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말레이시아만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영광의 땅’은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말레이시아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며 이들이 개별적인 민족이 아닌 ‘말레이시아인’으로써 함께 손을 잡는 ‘하나의 말레이시아’이라는 가치관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시에 대한 활동으로 ‘이 시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등의 질문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말레이시아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말레이시아인으로서는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하게끔 돕는다.

그림 6)는 중국어 교과서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레이시아!’라는 제목의 노래의 가사를 실고 있다.

<i>말레이시아</i>	<i>어떠한 시련을 마주하여도</i>
<i>내가 가장 사랑하는 국가!</i>	<i>당신을 위하여, 우리는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i>
<i>당신은 내게 바로 어머니입니다.</i>	<i>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i>
<i>내게 따뜻함을 주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고,</i>	<i>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레이시아!</i>
<i>내게 집을 주셨습니다!</i>	<i>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레이시아!</i>
<i>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레이시아!</i>	<i>당신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국가입니다!</i>
<i>당신을 위하여, 우리는 한마음으로 단결합니다.</i>	

이 노래가사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소수민족의 의복을 입은 다양한 인물들이 모두 말레이시아 국기인 ‘잘루르 그밀랑’ 들고 있는 그림이 삽화로 이용되었다. 애국심을 통해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칠 수 있다는 내용은 국가라는 최우선적 가치를 위해 서로 다른 문화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가 단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서로 다른 여러 민족이 말레이시아라는 공동체 내에 구성원이며 이로 인해 단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국가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교과목에서는 허용되는 행동과 금지되는 행동의 가르침을 통해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하고, 말레이어 과목에서는 말레이 문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의 교과서에는 말레이시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여 이러한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고 단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의 삽화,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국가라는 가치를 강조하여 다양한 민족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민족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라는 국가 공동체 속의 말레이시아인임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처럼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다룸과 동시에 그들을 대표하는 종교에 대한 내용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은 민족 간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갖게 하여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3. 학교생활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화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또한 수행한다.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른 민족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과 다른 민족의 종교와 교리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배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도덕수업과 종교수업에서 다른 종교의 교리와 지켜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행동들 등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학교생활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선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들은 각자의 민족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말레이시아인으로서의 일체감에 더욱 익숙해지게 된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위치한 중등학교 SMK Majidi Baru²에서는 학생들을 RED, GREEN, BLUE, YELLOW 네 가지의 팀으로 나누어 체육활동을 진행하여 각자의 민족에 대한 소속감 보다는 자신이 속한 팀의 팀원으로서의 소속감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팀을 구성하는 기준은 학생들의 입학 지원순서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과 종교가 한 팀에 존재하게 되며 그 속에서의 교류를 통해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각자 팀의 유니폼을 입고 체육활동을 받게 하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 간의 소속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의 말레이시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슬람 축제인 Hari Raya(하리라야)는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간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행사로, 무슬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도 축제에 참여하는데 그들은 함께 행사를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며 자신과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을 표하곤 한다. 또한 중국계 학생들을 위해 중국의 명절인 신년(Chinese New Year)을 기념하는 축제도 열리는데 이때도 다양한 종교의 학생들이 모여 기념일을 축하하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전통쿠키를 먹는다. 이처럼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 종교를 기념하는 축제를 통해 학생들은 타종교를 직접 경험하여 더욱 폭넓은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시각을 갖게 된다.

학교 내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교리에 따라 금지된 음식 또한 적지 않기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학교에서는 급식으로 할랄 음식을 제공하지만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힌두교 학생들을 위해 급식에는 대부분 닭고기와 생선 요리가 제공된다. 이렇게 제공되는 급식을 먹으며 학생들은 서로의 종교에서 금기시 되는 음식에 대해 알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또한 배울 수 있게 된다.

앞서 말한 SMK Majidi Baru2에는 SMB라는 학생회가 있으며 학생회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교의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한다. 학생회 구성원은 모두 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데 SMK Majidi Baru2는 97퍼센트가 말레이계 민족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반이라는 소수민족의 학생이 학생회에 선출되는 등 학생들이 본인의 민족만 우선시하고 민족을 위주로 결집하며 다른 민족의 학생들을 배척하는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교에서도 이어지는데 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The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인문대학 언어학과 류승완 교수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학교에서도 각 반의 리더를 선출하는데 반에 한 명 있는 인도계 학생이나 중국계 학생이 리더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다수의 민족에 의해 소수의 민족이 소외되는 현상을 거의 겪지 않으며 학교생활을 통해 각자의 민족에 집중하기 보다는 같은 말레이시아인이라는 소속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가치를 직접 깨닫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과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을 배려하는 법을 배운다. 말레이시아 내의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말레이계 민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무슬림이 많이 존재하는데 비무슬림 학생들은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지켜야 할 규율들이 많은 이슬람교를 이해하고 그들이 규율을 지킬 수 있게 돕고 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다섯 번의 기도시간을 갖는데 이 중 한 두 번의 기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는 한다. 무슬림 학생들은 기도시간이 되면 학교 내의 사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때 비무슬림 학생들은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 잠시 수업을 멈추고 그들을 기다린다. 그들에게 하루 다섯 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에 비무슬림 학생들은 자신의 종교를 존중하듯 자신과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교는 라마단 기간 중 해가 지기 전까지 금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때 학교에서 비무슬림 학생들은 식사를 하지 못하는 무슬림 학생들을 배려하여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듯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은 다른 종교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학교생활을 통해 직접 타종교 그 자체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종교를 믿는 민족 학생들에 차별적인 시각을 갖지 않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을 개별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말레이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민족과 종교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된다. 학생들의 사회화와 정체성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에서의 생활은 현재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종교 화합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터전이 되고 있다.

V. 결론

말레이시아는 여러 민족 간의 불화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이다. 민족 간의 뼈아픈 과거와 지속적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내제되어 있지만, 하나의 말레이시아인이라는 통합된 정체성 형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에서 종교란 각 민족의 대표 문화로서, 서로 다른 교리와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에 민족 간의 통합을 위해 필연적으로 다뤄야 하는 분야이다. 국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말레이계와 중국계, 인도계, 소수민족이 사회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 공식 교육기관인 국립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의 다양성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강조한다. 말레이시아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존재하는 나라이며, 이러한 모습이 말레이시아만의 정체성임을 인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민족과 종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돕는다. 학생들은 이러한 인식의 형성 통해 자신과는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외향과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말레이시아'라는 하나의 국가 아래 단결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여 통합된 국민 정체성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서로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학교 체제로 인해 새로운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타 종교를 더욱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말레이시아는 사회 내의 주류문화 이외의 다양한 문화에 간섭하지 않고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문화의 독특한 정체성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자칫 반목하기 쉬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국립 교육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종교 존중의 가치관을 전달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교육은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주류 문화를 강조하지 않

으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고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민족·다종교 국가의 긍정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물론 아직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지만, 국제사회의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교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관이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있다는 부분에서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사회의 모범적 사례로 여겨질 수 있다.

VI. 참고문헌

세계화 시대의 정체성 형성 교육에 관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비교 연구 (정미영)

말레이시아 이슬람의 특성과 그것이 기독교-이슬람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아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양국의 이슬람 부흥운동 비교연구 (양승윤)

말레이시아 이슬람 부흥운동의 발전과 침체 (소병국)

이슬람부흥운동의 정치, 종교적 의미 -말레이시아 1980년대와 2000년대 비교연구 (김효선)

말레이시아의 정치개혁 시민운동, '버르시 2.0' (오현철)

말레이시아 (소병국)

말레이시아 가톨릭 신자들에게 '알라'의 의미는?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2013/09/201399122648403691.html>

'예수vs부처'가 싸운다?... 격투게임 등장에 지구촌 '논쟁중'

게임 차단 나선 말레이시아... '부적절한 사고 예방 위해' 현석훈 기자

<http://www.vop.co.kr/A00001201338.html>